



병(病)과 사귀기



김정자 언론인

불행할 때,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방황할 때 우리의 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스스로 '아프기', 즉 육체적인 통증을 선택한다는 새로운 현대병이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번역 출간된 <섬유근육통> 이란 책은 이유 없이 그야말로 피병과도 같은 '은땀의 통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명 몸의 통증은 당사자에게 괴로움 하나를 더하는 것이겠으나 몸이 스스로 통증을 선택한다는 어쩌면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으로 바꿔 치유해 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경험으로 보아도 육체적 통증은 사람의 마음을 그 통증에 집중케 함으로써 쉽게 '마음의 통증'을 잊게 해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은 그 원인인 '마음의 통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일로, 통증 속에 약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마음의 통증'을 잊게 해 주는 '친구'처럼 찾아 온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육체의 신비 중 하나일 것이며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앞의 예가 아니라도 의학에서는 통증을 위기에방을 위한 일종의 경고, 어떤 질병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일단 병이 들면 완치를 목표로 삼고 그 완치목표는 발병이전의 상태 아니면 그보다 더 건강한 향상된 상태로 잡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병이 들면 그 이전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건강 한 사람이라도 그 체력은 하루하루 쇠퇴해 가는 것이 자연 현상이니 '그 이전'으로의 회귀란 꿈에 불과하다.

병을 친구처럼 사귀어 보는 방법은 없을까. 분명 병에는 우리들에게 친구의 역할을 맡는 일면이 있기도 하다.

동·서양 화합 기원 에펠탑 탑돌이



중남 천안의 증권화가이자 행위예술가인 변영환(47세)가 18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광장에서 가로, 세로 각각 10m의 한지를 펼쳐놓고 먹으로 석가탑을 그린 다음 그 한지를 몸에 두른 채 에펠탑 주위를 도는 1인 탑돌이 퍼포먼스를 했다. 변씨는 "과화 발달의 산물인 하늘을 찌르는 에펠탑과 불교 진리를 담은 아담한 석가탑이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장군속매

불교국가 부탄 "TV가 뭐기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서 범죄가 들끓는 나라로..." 작은 불교국가 부탄에 TV가 불러온 변화를 이르는 말이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1999년 TV 시청 허용 이후 서양의 상업방송을 즐겨본 부탄인들이 현실과 TV를 구별하지 못해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불교교리에 따라 살아온 부탄인들은 곤충을 죽이거나 과음하는 것을 큰 죄로 알 정도였다고 한다.

남북한이 지난 14일 동서 양쪽의 군사분계선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열었다. 경의선의 재개통은 1906년 개통 이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된 지 52년만이다. 동해선 역시 1937년 안변-양양간 192Km 개통 이래 한국전쟁 중 중단됐다. 북한핵문제도 한반도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철도 연결식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민족의 혈맥을 연결시킨 대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제1차 장관급회담과 지난 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 이후 5차례에 걸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수많은 난관을 뚫고 실현되었다. 그러나 반세기만의 철도 연결은 현재 완료가 아닌 걸음마 단계이다. 아직 남북이 추가공사를 해야 할 구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의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까지 13.1Km에, 동해선의 경우 남측이 저지부터 북측 온정리까지 27Km에 철도를 깔아야 한다.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경의선은 오는 9월 말쯤, 동해선은 연말쯤 완공될 것이다. 또한 두 노선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북한 구간 전체에 대한 개량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경의선의 꿈' 유럽까지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목도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허브 국가로서의 기능은 바로 철도 연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왜 이토록 우리는 철도 연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은 첫째, 철도 연결이 정치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요한 완충지대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북한 핵 문제로 북미, 북일 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

운데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협력 분위기는 고조되고 정치적 긴장이 약화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철도 연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당장 남북간 물류비용이 해상 수송에 비해 6배 정도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가 완성되면 가깝게는 한반도와 만주지역까지, 멀리는 중·일간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과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동북아 물

류 중심지로서의 한반도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획기적이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철도의 발달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수많은 변화를 동반해 왔다. 인적 교류의 증대, 문화적 동질성의 확대 등이 철도의 발달과 궤를 같이해 온 것이다. 한반도 철도 재연결 역시 남북한의 이질적인 사회문화를 통일시키고,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거시적 차원에서 인류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결은 동북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의 완전한 연결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토대가 되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완전한 만남을 가능케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우리는 서울에서 유라시아특급열차를 타고 파리까지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미를 살리기 위해 두 철도는 하루바삐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아니라 달려야 한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언론인회 '불교와 언론' 포럼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제시 필요

불교와 언론이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공종원)가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처음 마련했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와 언론'이란 주제로 열린 불교포럼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불교의 피해의식 탈피'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자세 지양'이 올바른 관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은운-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중요
2. 이선민-안정을 넘어 새로운 도약 필요
3. 김재일-불교편파, 매도 여전히 심각
4. 박경훈-언론 스스로 호법정신 가져야

이은운(전 중앙일보 종교 대기자)

모든 종교의 수행과 교회는 자기 내적 또는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중생제도를 통해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과 자기 내부 불성간의 소통이며 견성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하다. 포교라는 본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안거(安居)에 남녀 신도를

대거 수용하는 '개방형 선방'을 제시해 본다. 이와 함께 언론의 불교기사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이선민(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불교계의 현주소를 압축해 '안정'이라 표현하려 한다. 종책 대결로 승부했던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승려 교육제도의 정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포교활동, 생태공동체의 실현 등은 안정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정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꿔야 한다. 불교는 타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1 종교다운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주자. 또 사회 당면 문제와 관련, 불교적 관점의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재일(보리방송 모니터링 대표)

방송의 불교에 대한 역기능은 편파, 왜곡, 폄하 등으로 나타난다. 불교 왜곡사태도 기정사실이나 진실을 허위, 과장,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드러난다.

94년과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종단의 내분을 '난투극', '전쟁터', '공방전' 등으로 묘사한 것은 알권리 차원을 넘어선 방송폭력이었다. 이 보도는 언론이 종단사태를 보는 역사적 안목 없이 그저 종권을 둘러싼 폭력사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교 관련 TV 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전통문화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일부 방송작가들의 불교 폄하와 의도적 불교 매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며, 방송위원 인사도 종교편향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경훈(전 법보신문 주필)

불교계는 TV와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와 150여종의 정기·부

독자 투고

죽림산사에서

안개 속에서도 강원도의 산빛은 달랐다. 푸르름 속에 먼 길을 달려 고향의 풀이 뚝 속속 안겨들었다.

오랜 반가움으로 가슴 적시며 긴 사연 대신 따신 손 마주잡는다.

백발 성성한 나이에 외쳐보는 삼대강령 "우리는 진리의 빛, 참다운 구도자가 되려나" 삼십 성상(聖相)을 뛰어넘는 젊은 의절이려나.

어둠이 내려 산사의 적막이 짙어갈 때까지도 오뎀한 한 마음, 그 열정 식을 줄 몰라라.

깊은 밤 가만가만 잔 곁으로 오는 비 검은 그림자 같게 드리운 프락 나무 아래선 이름 모를 풀벌레 밤을 새워 우는데

불빛 찾아 몇 번이고 낙상(落傷)하는 나방이를 보며 언제 놓았는지조차 모를 심우(禪牛)의 끈을 찾아 이 밤도 다스곳이 머리를 조아린다.

이 글은 5월 24일 황성 죽림산사에서 열린 대불연 총동문회 수련대회에 다녀온 7기 부회장 이자욱(명정중) 교사가 본지와 대불연총동문회가 벌이는 동문 찾기 캠페인 시작을 기념하여 보내온 글이다.

정기 강행물을 갖고 있어 언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 언론의 불확실한 미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유사종교는 불교언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불교 언론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이버·유사불교나 빠지는 밀레니얼니즘에 현혹되는 세대와 경향을 감시하고 경종을 울리는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유사종교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이 침해받지 않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교 언론이 호법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하계 수련회 안내

이렇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코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	기 간	정 원	대 상
36차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50명 (남:25, 여:25)	20세 - 60세 일 반 인
37차	7월 28일(월) - 8월 1일(금)	50명 (남:25, 여:25)	
38차	8월 4일(월) - 8월 8일(금)	50명 (남:25, 여:25)	
39차	8월 11일(월) - 8월 15일(금)	50명 (남:25, 여:25)	유 경험 자

1.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2. 접수기간 :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미리 예약 접수)
3.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신청서류 작성
4. 접 수 처 : ●백양사 증무소 전화 : (061) 392 - 7502 / 팩스 392 - 2081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 392 - 0434 / 팩스 392 - 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참사람 수행원 → 수련회 신청서 작성
5. 수련회비 : 9만원(4박 5일)
6.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지참(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백양사 증무소 061)392-7502 수련회담당자 : 장제실

이안거 단기출가(산사체험) 안내



歸 鄉!

귀향은 자기 자신의 근원(本來面目)으로 돌아감(回歸)이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사의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심신을 말하는 수행속으로...

수련회 일정

- 제1차 7. 2 - 5(일반)
- 제2차 7. 9 - 12(일반)
- 제3차 7. 16 - 19(일반)
- 제4차 7. 24 - 26(종고생)
- 제5차 7. 28 - 30(어린이)
- 제6차 8. 1 - 4(일반)
- 제7차 8. 6 - 9(일반)

수련회비

- 일 반 : 80,000원
- 종고생 : 50,000원
- 어린이 : 20,000원

계좌번호

- 우체국-예금주 : 직지사 702829-01-000591
- 농 협-예금주 : 직지사 737081-51-014041